국별 리포트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5.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9

Ⅳ. 국제신인도 13

Ⅴ.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Ⅰ. 일반개황

면 적	882천 ㎢	G D P	3,824억 달러 (2012년)
인 구	29.52백만 명 (2012년)	1 인 당 GDP	12,955 달러 (2012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Bolivar(Bs)
대 외 정 책	반미 좌파동맹 추진	환 율(달러당)	4.29 (2012년)

□ 베네수엘라는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석유산업이 전체 수출의 95%, 정부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1999년 대통령 취임 이후 4선에 성공하며 14년간 장기집권한 차베스 대통령이 2013년 3월 암으로 사망함. 차베스 대통령은 풍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대내적으로 강력한 국유화 및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중남미 좌파연대를 이끌어 왔음. 2013년 4월 실시된 대선에서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마두로는 차베스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라고 밝힘.

□ 반미노선 추구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등 인접국과도 외교마찰이 지속되고 있으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니카라과, 쿠바 등 중남미 좌파 국가들과는 대규모 원조 공여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e
경 제 성 장 률	5.3	-3.2	-1.5	4.2	5.5
재정수지/GDP	-3.5	-8.7	-10.7	-12.2	-18.9
소비자물가상승률	30.4	27.1	28.2	26.1	21.1

자료: EIU.

□ 2009~1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2011년 이후 경제성장 지속

o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도성장세를 지속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반전한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어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됨.

o 2010년 들어서도 외환 및 가격 통제 등 정부의 인위적 경제개입 확대와 투자심리 위축,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1.5%)을 기록함. 이는 2009년 침체 이후 대부분 경기반등에 성공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는 대비되는 현상임.

o 2011~12년에는 고유가와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각각 4.2%,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석유생산 감소, 생필품 수입 증가, 전력난으로 인한 제조업 성장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인한 물가불안 지속

o 베네수엘라는 2003년 외자유출방지를 위한 외환통제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통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 두 자리수 대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하는 등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음.

- 외환통제로 인한 투자 위축과 제조업 생산 부진, 가격통제에 따른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 포기 등으로 유발된 생필품 공급부족 등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확대정책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 최저임금 상승 등도 물가상승을 부추김.

o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을 통한 물가안정정책이 오히려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6.6%,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1%를 기록했으며 2013년 2월 중에도 23%를 기록함.

o 최근의 볼리바르화 평가절하와 국내 제조업 생산성 저하, 생필품 수입 증가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우려

o GDP의 4%에 달하는 에너지 보조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을 포함한 막대한 정부지출, 주변국에 대한 저가의 석유공급 및 석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베네수엘라는 2006년 이후 매년 재정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재정수지 적자 폭은 매년 확대되어 2012년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8.9%를 기록함.

-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예산을 25% 증액하여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석유 관련 재정수입 증가를 위해 2013년 2월 볼리바르화를 32% 평가절하함.

* GDP대비 재정적자: -3.5%(2008)→ -8.7%(2009)→ -10.7%(2010)→ -12.2%(2011)→ -18.9%(2012)

o 차베스가 지명한 후계자임을 내세우는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상 사회보장성 지출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네수엘라의 석유생산량 감소 및 경제성장률 둔화를 고려할 때, 재정수지 적자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o 베네수엘라는 OPEC회원국으로 세계 1위의 석유매장량(확인 석유매장량 2,965억 배럴로 세계 매장량의 18% 차지) 보유국임. 석유산업이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정부예산의 60%, GDP의 30%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o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베네수엘라 경제는 2009~10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됨.

□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미비

o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인프라의 미비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2010년 상반기에는 가뭄으로 인해 전력생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가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기도 하였음.

o 정부 개입주의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연되고 있어 인프라 부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나. 성장잠재력

□ 경제구조 개혁 부진으로 성장잠재력 낮아

o 석유의존 경제 탈피를 위한 경제구조의 다양화 정책, 공공부문 합리화 및 세수기반 확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사회 각 분야에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석유산업 투자 부진으로 석유 생산량 감소세 지속

o 석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PDVSA 수입의 상당부분이 국가개발기금을 통해 사회보장지출과 인프라 사업에 사용돼 탐사 및 생산을 위한 재투자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됨.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1년 PDVSA의 매출액은 1,239억 달러로 이중 약 240억 달러(19%)가 로열티와 세금이었으며 약 300억 달러(24%)는 차베스의 비자금으로 축적됨.

o 2006년 신 석유법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악화돼 엑슨모빌(Exxon Mobil)과 코노코필립스(Conoco Philips)가 베네수엘라 석유사업을 포기하는 등 정책리스크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된 상태임.

- 신 석유법 주요내용

• 외국계 기업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투자시 반드시 PDVSA와 합작회사 형태로 투자하고 PDVSA가 지분의 최소 60%가 되도록 하여 기존 외국인 투자의 상당 부분 국유화

• 외국계 기업에 33%의 로열티와 최소 50%의 법인세 부과

• 분쟁해결 관련 사법관할권을 베네수엘라 국내사법부로 한정

o 투자 위축, 외국계 기업의 철수 등으로 생산효율성이 저하되면서 2011년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량은 1일 평균 272만 배럴(세계 11위)을 기록함. 이는 차베스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1998년의 348만 배럴(세계 6위)에 비해 22% 감소한 수준임.

다. 정책성과

□ 강력한 외환통제 실시 및 새로운 외환거래시스템 도입

o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국불안 및 투자환경 악화로 인한 외자유출이 확산되자, 2003년 정부의 외환거래시스템인 CADIVI(외환관리위원회)를 도입하고 그 외의 외환거래는 전면 불법화함.

- CADIVI의 일일 평균 외환거래량은 7천만 달러로, 베네수엘라의 일일 평균 수입금액 2억 달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CADIVI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은 암시장을 이용하고 있음.

o 2010년 6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업이 중앙은행의 유가증권(정부채권 또는 PDVSA 채권)을 매입한 후 판매하여 달러를 확보하는 외환거래 공채시스템(SITME)을 도입, 미달러 대비 5.4 볼리바르의 거래환율로 운영하여 CADIVI 거래 부족분을 보충하였음. 그러나 정부채무 문제가 가중됨에 따라 2013년 2월 동 제도를 폐지함.

o 2013년 3월, 경매방식의 외환거래 보완시스템(SICAD)을 도입하여 기본환율을 달러당 6.3볼리바르로 설정하고 운영을 시작함. 그러나 동 제도는 실제 거래가 체결된 환율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2013년 2월 볼리바르화 추가 평가절하

o 2010년 1월 공식환율을 달러당 2.15볼리바르에서 4.3볼리바르로 평가절하하였으나, 식품과 의약품 같은 생필품 수입시에는 달러당 2.6볼리바르를 적용하는 이중환율제를 도입하였음.

- 2010년 12월 이중환율제도가 폐지하고 환율은 품목에 관계없이 달러당 4.3볼리바르가 적용됨.

o 2013년 2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관련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공식환율을 4.3볼리바르에서 6.3볼리바르로 다시 평가절하함.

-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외환통제로 인한 달러 부족으로 실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달러당 25볼리바르에 이르고 있음.

□ 국유화 정책 지속 추진

o 차베스 대통령 집권 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개발, 광산, 전력, 통신, 은행, 유통 등 거의 모든 전략적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계약을 무시한 강제 국유화가 실시되면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2012년 1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엑슨모빌(Exxon Mobil)에 대한 9억 달러의 배상 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ICSID를 탈퇴한다고 밝힘. 엑슨모빌은 2007년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포기하면서 ICSID에 배상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ICSID에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 미결상태로 남아있는 중재건은 해당 건을 포함해 10건임.

o 2011년 8월에는 금 불법 채굴을 방지하고 외환보유액 확보처의 다변화 명목으로 금광업의 국유화를 선언하였음. 이는 최근 미국 및 유럽 리스크로 금값이 급등함에 따라 금광업을 통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e
경상수지	32,216	2,328	8,874	24,441	11,071
경상수지/GDP	10.2	0.7	2.3	7.7	2.9
상품수지	43,551	16,434	27,234	46,026	38,031
수출	95,017	57,599	65,741	92,807	97,336
수입	51,466	41,165	38,507	46,781	59,305
외환보유액	33,098	21,703	13,137	9,930	9,900
총외채잔액	66,358	81,946	97,092	110,745	118,949
총외채잔액/GDP	19.5	24.4	39.3	34.1	29.1
DSR	10.4	15.5	15.7	12.6	9.2

자료: IMF, EIU 및 IIF.

□ 2012년 총수출증가율 위축

o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2002년 215억 달러 규모였던 석유 수출이 2008년 89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2009년 석유수출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542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2009년 총수출증가율도 -41%를 기록함.

- 국제유가(배럴당 달러): 25.0(2002) → 97.3(2008) → 61.7(2009) → 79.5(2010) → 111.3(2011) → 112.0(2012)

o 2010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2010년과 2011년 총수출증가율이 각각 11.4%, 39.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함. 2012년 석유수출액은 2008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인 936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계속되는 석유생산량 감소 및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로 전년 대비 총수출증가율은 4.6%로 상당히 둔화됨.

□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흑자폭은 감소

o 석유수출이 총수출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산업 구조상 국제유가 변동에 의해 경상수지가 좌우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에 힘입어 2004~08년 평균 GDP 대비 상품수지 흑자 16.7%, 경상수지 흑자 12.6%를 기록하며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함. 그러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의 약세 전환으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의 7% 수준(23억 달러)으로 대폭 축소됨.

- 2010년에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폭은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의 상승 반전으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하였음. 2011년에도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244억 달러(GDP 대비 7.7%)로 확대됨.

o 인위적인 정책 개입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석유 이외의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생필품 등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2012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2.9% 흑자를 기록하는 데 그쳐 2008년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수준이 계속되고 있음.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13년 3월 5일, 14년간 장기 집권한 차베스 대통령 사망

o 차베스 대통령은 1999년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4선에 성공하여 14년간 장기 집권하였으며 특유의 카리스마로 주요 산업 국유화, 사회복지정책 강화, 신자유주의 반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차베스식 정치이념(Chavismo)을 주창·실천함.

- 빈민층에 무상교육 및 무상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휘발유·생필품 등을 무료로 보급하는 등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빈민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이에 필요한 자금은 PDVSA를 통해 조달함.

o 차베스 대통령은 신헌법을 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하였으며 입법, 사법, 행정과 군부를 모두 장악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왔음. 오랜 재임기간과 권한 집중으로 베네수엘라 정치는 차베스 1인의 카리스마에 크게 의지하고 있어 차베스의 유고는 베네수엘라 정치에 큰 공백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

o 2013년 4월 1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PSUV)의 마두로 후보가50.8%를 득표하며 야권통합연대(MUD)의 카프릴레스 후보에게 1.8%p(약 27만표) 차이의 승리를 거두고 대통령에 당선됨.

- 차베스가 2012년 12월 본인 유고시 마두로 부통령을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시켜줄 것을 국민에 당부했고, 차베스에 대한 추모 열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선거가 실시됐으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10일에 불과해 마두로의 압승이 예상됐으나, 실제 선거 결과는 매우 근소한 차이의 승리로 나타남.

- 야당은 결과에 불복하여 전체 재검표를 요청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재검표를 실시할 근거가 없다고 이를 거부함. 2013년 4월 19일 선관위는 선거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는 재검표가 아니라 개표기에 대한 기술적인 확인에 그치며 선거 결과가 번복되는 일은 없다고 밝힘.

-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는 쿠데타라고 지칭하였으며, 2013년 4월말 교도부 장관이 카프릴레스를 수감할 감옥이 준비돼 있다고 발언하는 등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마두로 정부와 야당 사이의 긴장이 심화되고 있음. 교도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여당이 사법 조치를 통해 카프릴레스를 정치적으로 제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o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으로 마두로 대통령은 정권 창출 단계에서부터 취약성을 가지고 출범하였으며, 이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마두로 대통령의 입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군부 출신의 까베요 국회의장, 차베스 정권 부통령 출신인 하우아 등 여당 내 유력인사들에 의한 마두로 대통령의 권한 약화가 예상되며, 마두로 대통령이 6년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음.

o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차베스의 후계자라는 점이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므로 당분간 베네수엘라 정책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중산층 부재로 사회불안 지속

o 중산층이 거의 없고 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빈곤층과의 빈부격차가 커 사회범죄율이 높으며,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황임.

o 베네수엘라 폭력관측소(OVW)에 따르면, 2010년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1만 9천건 이상이며 이는1999년 조사치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남.

-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 발생률은 60건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멕시코(15건)나 반군 소탕이 전개 중인 콜롬비아(38건)보다도 높은 수준임.

□ 범죄율 증가로 교도소 수용범위 한계 도달

o 베네수엘라는 높은 범죄율로 인해 교도소 수감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도시설이 부족한 상황임. 2011년 교도부 장관 Iris Varela는 문제해결을 위해 2만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당분간 추가로 수감자를 받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

o 한편, 교도소 내 보안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2011년 6월에는 무기를 소지한 1,000여명의 수감자들과 군인들이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음.

□ **대선 결과를 둘러싼 소요사태 발생**

o 2013년 4월 대선 결과를 두고 재검표를 요구하는 카프릴레스 지지자들의 시위가 베네수엘라 전역으로 번지면서 진압에 나선 경찰과의 충돌로 8명이 사망하였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재검표 시위에 미국이 개입했다며 야당과 미국을 비난함.

3. 국제관계

□ **미국과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적 교류는 활발**

o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1999년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함. 차베스 대통령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주장하며 쿠바, 리비아, 이라크 방문 등 미국을 자극하는 외교활동을 계속해 왔음. 미국이 2002년 쿠데타를 배후 조정했다는 명목으로 미국대사를 추방하였으며, 이후 미국도 베네수엘라 대사를 추방하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마약범죄 단속협력을 거부하는 등 양국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음.

- 차베스 사망 후 베네수엘라는 미 공군 관계자 2명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하였으며, 미국 역시 베네수엘라 외교관을 추방함. 또한 2013년 4월 대선 결과를 두고 미국이 야당의 재검표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고 있음.

o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제적으로는 석유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베네수엘라는 2012년 기준 미국의 12위 수입상대국(석유는 4위)이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자국이 사용하는 원유의 10%를 수입하는 등 베네수엘라의 최대 수출상대국임(2011년 기준 베네수엘라 수출의 43.1% 차지).

- 차베스 사후 미국에 대해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미국 역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 계획을 부인함.

□ 콜롬비아 등 인접국과 긴장관계 형성

o 콜롬비아 좌익 반군지원 의혹, 멕시코의 세멕스 국유화, 페루 내 좌파세력 지원 의혹 등으로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인접국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이 양국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임.

o 특히, 콜롬비아 미국기지 건설 문제와 베네수엘라의 콜롬비아 반군 활동을 지원 의혹 등으로 인해 콜롬비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0년 7월에는 콜롬비아와의 단교를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

□ 중남미 반미 좌파연대의 구심점 역할 수행

o 베네수엘라는 2004년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연맹'(ALBA)을 창설했으며, 2005년에는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를 설립하고 이들 국가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여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중남미 반미 좌파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연맹: 반미 성향의 중남미, 카리브해 좌파 9개국 연합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 페트로카리베: 베네수엘라 외 카리브해 연안 17개국으로 이뤄진 석유 협의체로, 베네수엘라는 회원국에게 석유 수입액의 40%에 대해 장기금융(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17~25년),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연 이자율 1%)을 제공함.

□ 중국,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대외관계 다변화 모색

o 최근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지역의 전통적인 동맹국 외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 석유 수출국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최근 4년간 중국으로부터 40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도입하는 등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의 부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하는 등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위기 경험국이나,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

o 베네수엘라는 1983~84년 그리고 1988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으며, 1990년 12월 브래디플랜(Brady Plan)에 의거 총 외채 380억 달러 중 196억 달러에 이르는 대외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음. 이후 베네수엘라의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외환통제에도 불구하고 외채원리금은 정상 상환

o 외환통제에도 불구하고 외채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및 양호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할 때, 외채 및 원리금 상환부담은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그러나 최근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외채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상존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 지원태도

o US Exim : 인수불가

o ECGD : 정상인수

o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음

□ 주요 기관별 신용도평가 등급

o OECD는 2008년까지 6등급을 유지하다가 2009년 정부의 지나친 개입주의,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등을 이유로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후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o S&P는 2011년 8월 가격 및 외환 통제로 인한 시장왜곡과 민간투자 저해, 금광산업 국유화,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악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등을 근거로 베네수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D1	(2013.5)	C3	(2011.9)
OECD	7등급	(2012.6)	7등급	(2011.7)
S&P	B+	(2011.8)	BB-	(2010.1)
Moody's	B2	(2013.1)	B2	(2009.1)
Fitch	B+	(2013.3)	B+	(2012.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5년 4월 29일(북한과는 1974년 10월 24일)

□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93), 외교관 및 관용 사증면제협정(94), 문화협정(94),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06), 사증면제협정(07)

□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는 미미한 수준**

o 2012년 한국-베네수엘라 교역규모는 약 6억 달러이며, 베네수엘라는 한국의 수출상대국 70위, 수입상대국 87위에 해당함.

o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교역규모가 급감하였으나 201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2012년 중 평균 교역규모는 6.6억 달러 수준임.

-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선박, 가전기기 등이며, 수입은 베네수엘라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 알루미늄, 기타금속광물 등 1차 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4> 한·베네수엘라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베네수엘라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644	615	523	자동차, 선박, 가전기기
수 입	125	137	115	석유, 알루미늄, 기타금속광물
합 계	769	752	638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 투자는 1차 금속제조업 분야에 집중

o 우리나라의 대 베네수엘라 직접투자 규모는 2012년 말 누계 기준으로 25건, 6,666만 달러 수준으로 투자분야는 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음

Ⅴ. 종합의견

□ 2012년 베네수엘라 경제는 고유가와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5.5%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국내총투자도 26%로 전년 증가율을 상회하며 최근 3년간 상승 추세를 나타냄. 그러나 당초 예정된 2012년말 대선을 앞두고 정부예산을 25% 증액하는 등 과다한 정부지출로 2012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8.4%를 기록해 재정건전성이 우려됨. 또 석유 생산량 감소, 제조업 기반 약화에 따른 생필품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등 대외거래 지표와 외채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차베스 집권 중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심화와 연임제한 철폐를 통한 영구집권 추진 등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으로 평가됨. 차베스가 2013년 3월 사망하고 4월 실시된 대선에서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가 1.8%p의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야당은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재검표를 요구함.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 빈부격차, 치안 불안,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지속 등 사회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최근 대선 재검표 요구 시위 진압 과정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안정성이 다소 취약한 상황임. 또한 OECD, S&P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도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 또는 B+/B2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조사역 이주은 (☎02-3779-5712)
E-mail: june@koreaexim.go.kr